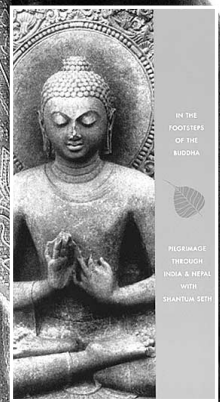


“인도에 플럼 빌리지 세웁니다”

“인도 플럼 빌리지 건립으로 세계 불자들의 인도불교에 대한 관심어린 발길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제자이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자문위원인 산탐 세스(Shantam Seth) 법사가 지난 10월 22일 방한, 플럼빌리지 인도 지부 건립 계획을 밝혔다.

틱낫한 스님 제자 산탐 세스 법사 방한 부처님 채취 느끼며 ‘가르침’ 살필 터

세스 법사는 한국방문 직후 베트남을 거쳐 인도로 들어가 ‘플럼 빌리지 인도 지부’의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델리 인근과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사르나트 지역의 부지를 매입했다. 세스 법사가 마을 개발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내년 내년 10월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된다. 이번이 첫 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것



틱낫한 스님의 제자들

틱낫한 스님에게는 수백 명의 출·재가 제자들이 있다. 하지만 틱낫한 스님이 참여불교의 기수로 세계 곳곳에 알려지기 이전에는 정식승가자 보다는 소수의 재가불자들이 다수였다.

1980년대 후반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1세대 제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세스 법사처럼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불법과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조안 해

1세대 참여활동 통해 가르침 전파

조안 해리팩스 등 불교환경운동 대표

리팩스(Joan Jiko Halifax)와 저널리스트인 애너벨 레이타가 그 대표적인 인물. 또 베트남계 토(Tho)와 스위스계 리지(Lisi)씨는 현재 미국에서 장애아 보호 활동을 하고, 빌 멘자(Bill Menza) 법사는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하고 있

다. 칼(Karl)과 헬가(Helga)씨는 독일에서 명상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인과 메레이(Jane and Murray)씨는 영국에서 수의사로서 동물 보호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베트남 전쟁 피해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후원을 비롯해 출판, 심리치료, 교육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성희 기자

는 “동북아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 방문 전 일본과 중국 등을 둘러봤다”며 “남방불교와 갈래만 다를 뿐 다 같은 불교임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스로를 플럼 빌리지의 ‘말행’이라고 일컫는 그는 전통 베트남 불교 수행법의 법사로, 틱낫한 스님과 함께 수행하며 플럼 빌리지의 홍보와 출판 관련 일을 맡고 있다. 또 1991년부터 UNDP에서 저개발 국가 16개국의 환경문제 개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전문 분야는 석가모니 부처님 유적답사. 1988년, 틱낫한 스님이 인도 출신인 그에게 부처님의 생애를 배울 수 있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권유했고 이것이 ‘부처님의 삶’과의 첫 인연이 됐다. 이후 현재까지 그가 계획한 성지순례 코스는 플럼 빌리지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교육으로 활용돼 오며, ‘부처님의 발자취(Buddha Path, www.buddhapath.com, 사진은 브로셔)’라는 정식명칭을 가진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세스 법사는 성지순례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좇는 것은 수행하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발자취를 찾아야 하며 ‘고타마 싯다르타’가 수행을 통해 고뇌와 번뇌를 어떻게 이겨내 부처가 됐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1986년 출산 스님으로부터 선 수행을 배우기도 했다. 그는 한국불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일상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부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성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⑤ UCLA 한국학·불교학 연구소



◇로버트 버즈웰 박사

재학생의 10% 이상이 한국계. 미국 내 한국학 박사학위 등록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한국을 비롯한 다민족, 다인종의 학생수가 미국 내 대학 중 가장 많기로 손꼽히는 곳인 만큼 그와 연계된 문화, 민족 연구소가 발달돼 있다.

UCLA에서 매년 불교관련 수업을 포함한 한국학 강의를 듣는 학생은 2000여명에 달한다. 한국 학과에서는 ‘한국불교’, ‘한국불교 경전 입문’, ‘한국불교 경전 연구’ 등의 수업을 1~2학기에 걸쳐 개설하고 있다. 또 한국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한국어 수업 역시 기초 교양 과목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UCLA의 한국학 연구소와 불교학 연구소와 연계한 강의들이다.

UCLA 불교학 연구소(Center for Buddhist Studies)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UCLA의 한국학 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는 1994년 로버트 버즈웰(Robert Buswell) 박사에 의해 설립됐다. 박사는 한국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법명 해명)를 받고 5년 동안 참선수행을 할 만큼 한국불교와

불교와 한국학 강의 듣는 학생 2000여명 버즈웰 박사 설립 연구진, 프로그램 자랑 최근 주 정부의 지원비 삭감 위기 봉착

인연이 깊다. 원효 연구부 박사학위를 수여한 그는 한국학, 특히 한국 불교학의 권위자로 꼽히며 UCLA를 서구사회에서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로 키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학자다.

버즈웰 박사가 7년 동안 한국학 연구소장을 역임한 뒤 2001년 8월 설립한 불교학 연구소는 미국 내 불교학 분야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훌륭한 연구진과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늘어나는 미국 내 아시아계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인 불교문화를 먼저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연구목적에 밝히고 있다.

불교학 뿐 아니라 아시아 문화 비교학, 한국, 일본, 중국학 분야에서도 연구 성과에 있어 우위를 나타내는 UCLA 불교학 연구소는 매년 불교학자들을 초청해 워크숍, 강연회, 국제학술대회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교 수행 체험, 현장 답사, 불교 지도자와의 대화 등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최근 UCLA의 한국학 연구소는 주 정부의 예산문제에 의해 초청 강연, 학술대회, 연구 활동 등에 쓰이던 지원비 2만 5천 달러가 삭감돼 어려움에 처해있다. 장학금과 조교자리도 줄어, 학생들 또한 한국학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왕성한 연구 활동을 보여 왔던 UCLA 한국학 연구소의 위기로 인해 한국 불교학 연구의 장 또한 위축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성희 기자

예일대, 불교학 교수 증원 결정

미국의 명문사학 예일대가 불교학 교수를 증원하기로 했다고 예일 데일리 뉴스가 10월 22일 보도했다.

예일대의 이같은 결정은 세계적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져 불교도 인구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또 3년 전 이 대학에서 35년 동안 불교학을 담당해온 스탠리 교수(Stanely Weinstein)의 정년퇴임 이후 새 교수 임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예일대 종교학부는 그동안 개신교, 유대

교, 카톨릭 등에서 강세를 보여 왔으나 아시아권 종교인 불교, 힌두교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이 미비했다.

중국, 무신론 선전공세 강화

중국 중앙정부가 관영 언론들에 대해 정통 공산주의 세뇌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0월 22일 이같이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관영 방송사들은 마르크시즘의 원리와 실체는 물론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이론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도난당한 네팔 유물 고국으로

네팔이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400년 된 보물급 유물인 부처님 용안 탈(사진)을 10월 24일 돌려받았다.

창동과 구리로 만들어진 이 탈은 카트만두 인근의 한 지역에서 예불 의식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이다. 역사적, 종교적 중요성으로 인해 엄중히 경비됐던 이 탈은 그러나 2년 전 쯤 불상과 함께 도난 당했다. 그리고 최근 독일인이 오스트리아 유물박물관에 20만 달러에 내놓아 발견하게 됐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네팔 불교 전문가 등



과 함께 도난 됐던 유물의 진품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주타 스테판 바스틀(Jutta Stefan-Bastl) 오스트리아 주재 네팔 대사에게 건넬 예정이다.

현대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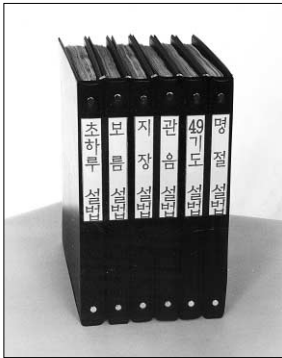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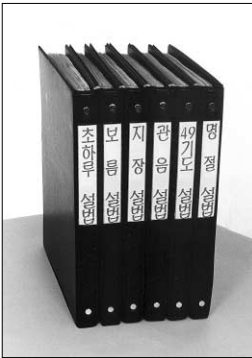
- 반드시 경전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자재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활자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음

◆ 백중 49일 기도,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명절, 방생, 영가천도, 일요법회 수련 법회,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시림회, 보살회 법문, 가족법회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대설법연구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